

# 대성에너지 '사랑의 열매 차량' 기부

기사전송 2015. 07. 22. 21:35:44

임직원 성금 모아 마련  
대구쪽방상당소에 전달



대성에너지는 22일 임직원 성금 모아 마련한 '사랑의 열매 차량'을 대구쪽방상당소에 전달했다.

대성에너지(주)(대표이사 강석기)는 22일 대구 서구 문화로에 있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정혁신 노사협의회 대표, 윤승걸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원장, 박용훈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사랑의 열매 차량'을 대구쪽방상당소에 전달하는 뜻깊은 기부를 했다.

대성에너지는 그동안 대구쪽방상당소와 호흡을 같이하며 매달 반찬나눔 봉사활동, 여름철 폭염나기 캠페인, 사랑의 김정나눔 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는 항상 지원 차량 부족으로 쪽방주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보고 1천만원 상당의 경차를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열매 2호 차량은 대구쪽방상당소가 관리하는 900여 쪽방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일반차 배달서비스, 폭염과 혹한 지원사업, 의료실태 조사 등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성에너지 정혁신 노사협의회 대표는 "찾아가는 복지, 가깝고 편안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기관 차량 지원사업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소외이웃을 위한 희망고리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취소